

《時 論》

大望의 70年代를 맞으면서

安 文 圭

〈韓國타이어工業協會〉



많은 歷史的인 變遷過程과 함께 60年代가 지나 後進國을 벗어나고 中進國으로 될 수 있는 大望의 年代라는 말이 우렁차게 메아리치며 70年代의 밝은 불길은 타기 시작하였다. 돌이켜 생각컨데 어느 民族이나 어느 人間이든지 모두가 주어진 社會에서 보다 生活의 向上된 環境에서 잘 살기를 願하는 것은 人間의 本能이요, 그러기에 世界의 30億 以上이나 되는 人口가 人種과 地域의 差異를 두고 近代的인 生活의 삶을 爲해 일하고 있는 것도 다같은 人間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도 世界人口의 100분의 1도 못되는 人口 3,000餘萬으로서 兩分된 國家에서 祖國의 統一을 渴望하며, 그 어느 해보다도 政治的인 面에서나 經濟的인 面에서 後進國이라는 現實을 切實히 느끼며, 跳躍的인 經濟發展과 政治的인 發展을 해야한다고 學界, 言論界 또는 政治人들이나 經濟人들이 問題點으로 討議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보다 精神的으로 自覺하여 態度를 決定하는 目的現念이 될 것이다. 隣接國家인 日本에서만 하더라도 科學文明이 高度로 發達하여 國民總生產所得(GNP)이 世界에서 第三位이며 심지어는 사람의 손이 모자라서 中學校만 나와도 社會에서는 雇傭스카우트戰이 벌어지는 現今에 있어서 우리는 보고만 있어야 할 것인가? 地理的인 條件도 비슷하고 人種도 비슷하면서 先進國, 後進國으로 區別될때 그 責任은 歷史에 나타나 있듯이 先祖政治人들의 잘못이 너무도 큰 것이다. 한 家族이 家長에 依해 그 家族의 生計가 左右되듯이 家族이 灣인 大社會로서 또한 社會가 灣한 國家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政治人들에 依해서 그 나라의 繁榮이 左右되는 것은 論할 餘地

가 없는 것이다.

世界各國을 政治的으로나 經濟的으로 볼때 그 社會가 經濟的으로 向上된 나라에서는 政治的인 것이 큰 問題가 되지 못하지만 後進國일수록 더욱 問題가 되는 것은 그 國家社會의 經濟的인 貧困때문일 것이다. 後進 國家가 富強하게 될수 있는 것은 政治的인 安全性과 經濟的인 繁榮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첫째, 政治的인 安全性은 先進國과 같이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모든 것이 體制가 確立되어 있어서 어떤 政治的인 變化가 온다 하더라도 별로 差異가 없이 經濟發展이 進行되지만 後進國에서는 政治的인 變化가 왔다 하면 하나에서 열까지 새로운 問題가 제시되니 自然히 無秩序한 狀態가 되는 것이다. 또한 實際的으로 못 사니깐 政治될려는 사람이 많고 政治에 關心이 많은 것이다. 또한 經濟社會가 發達 못 되었으니 第一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또한 出世할 수가 있는 것이 政治에 參與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萬一 社會의 어떤 企業에서 일을 하든지 또는 事業的인 면에서도 얼마마한 努力을 하면 現國會委員의 歲費이상의 收益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政治에 參與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機會主義者가 될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 經濟的인 繁榮에 있어서 現在와 같은 經濟開發토서는 後進國을 벗어나 날 수가 없으니 跳躍해야 한다는 것은 當然하다. 우리가 經濟建設을 하기 爲해서는 무엇보다 隣接國家인 日本을 相對로 科學技術을 習得하여 받아 드리는 것이 跳躍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日本은 先進國에서도 國民總生產所得이 世界에서 第三位이냐 되는 國家이고 다른 國家보다 距離도 가까우니

日本을 相對로 經濟建設에 邁進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한企業 한企業이 成長하는 것이 國民經濟에 그만큼 影響을 갖으며, 政府의 모든 國營企業 또는 모든 民間企業의 跳躍이 時急한 것이다. 1人經營(One man business)으로 企業은 시작하였으며 18世紀 末葉부터 英國을 中心으로 하여 始作된 産業革命은 歐羅巴諸國의 社會思想과 産業組織을 全面的으로 改造하였고 또 第一次 世界大戰後에 있어서의 近代의인 科學文明의 發達は 經濟社會를 急激히 發展시켰다. 오늘날의 科學이 急速度로 發達함에 따라 社會企業도 急速度로 發展하고 있으며 産業社會에서 主動的 役割을 하고 있는 企業經營者의 合理的인 經營活動이 무엇보다 企業의 發展을 평가하는 것이다. 企業은 公企業이거나 私企業이거나 그 自體가 企業經營者의 것이라기 보다는 公共社會의 福祉와 利益을 爲하여 貢獻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公共的인 性格을 띠며, 따라서 오늘날에 있어서 모든 事業經營은 그것이 어떤 一個人의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國家社會의 것이라는 일종의 公共性과 社會性의 特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經營者는 보다더 合理的인 營利를 目的으로 해야 하지만 現實의 經營活動에 있어서 무엇보다 經營主와 勞動者 間에는 賃金과 人事管理가 恒常問題가 되는 것이다. 特히 賃金에 있어서 勞動者에게는 有一한 收入의 源泉이요, 家族의 生計를 維持케 하는 가장 重要한 經濟的 支柱가 되지만 經營主에게는 賃금이 무엇보다 Cost의 제

일 큰 比重을 차지하며 따라서 企業의 收入에 있어서 큰 比重이 되므로 서로 相反되는 問題가 생기며 自然히 賃金에 對한 勞動爭議가 發生할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으며, 過去의 勞動爭議는 賃金引上이 60% 以上을 찾아 한 것은 바로 이것을 具體的으로 立證하는 것이라 하겠다. 「人間과 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合理的인 賃金形態와 滿足할만한 賃金水準은 勞動生產能率을 높이는 源泉이 되며, 이것은 經營主의 意思決定에 따라서 合理的으로 解決하여 企業을 經營하여야 그 企業을 國民과 國家가 願하는 方向으로 發展 할 것이다.

옛날부터 10년이던 江山이 變한다고 하였는데 70年代의 앞길에서 모든 政治人이나 經濟人들이 跳躍的인 생각으로서 計劃, 組織, 運營 및 統制로서 合理的으로 모든 것을 解決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60年代의 經濟成長을 볼것 같으면 都市에서는 急速度로 發達하였지만 農漁村에는 몇 십년前 先祖들이 使用하던 生産活動을 그대로 使用하며 모든 것을 比較할 때 옛날과 至今과 別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 事實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政治的인 安全性 밑에서 經濟的인 開發이 都市와 農漁村이 至今과 같은 너무나 큰 差異가 없이 成長하기를 全國民은 待望하고 있으며, 政治的 또는 經濟的인 發展의 結果는 後日에 歷史가 正確하게 말하여 줄 것이다. 또한 全國民도 새로운 精神과 態度로서 國家計劃에 積極參與하여 70年代에 祖國의 近代化가 이룩되기를 懇切히 바라는 바이다.

